

월요논단



김명범 행정학박사·제주공공문제연구원장

돌봄 민주주의와 마을 공동체의 책임

사람은 태어나 죽기까지 돌봄(care)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존재다. '돌봄 민주주의'의 저자 토론토(Joan Toronto)는 궁극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돌봄 부담이기에 돌봄의 과정을 평등하게 분담하는 '함께 돌봄(care with)'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그녀는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돌봄 책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무임승차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 민주화'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연말 계엄·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2024 제주사회 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조사대상 도민 3000명 가운데 18%인 미취학(63.9%)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44.3%)들은 부모 돌 중 한 명은 직장을 포기하고 가사와 양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제주사회의 열악한 아동 돌봄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건입동의 경우 한 해 출생아 수가 40명 정도에 그치면서 마을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2014년 700명에 육박했던 제주동초등학교 학생수도 현재 500명에 불과하다. 반면 건입동에는 공적 아동 돌봄 시설은 3개소 밖에 없다.

정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 아동돌봄시설은 저학년 중심 10명 정도로 제한적 운영이 불가피하고,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가정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만 운영한다. 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대기에 2년 이상 걸린다. 아동 돌봄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이탈하는 결정적 이유다.

지난해 건입동도시재생센터가 제주동초등학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동돌봄시설 공급 부족과 미스매치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 공백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돌봄 시설 존재 여부나 운영 정보도 부족해 신청시기를 놓쳐 발만 동동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2021년 건입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동돌봄 부담을 가정으로만 돌리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돌봄센터 건립을 포함시켰다. 부지 마련부터 공간 구성 등 공사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마을기업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제주도 1호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마을 돌봄을 위해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고민의 시간들이었다. 돌봄시설 하나 더 늘었다고, 마을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을 곳곳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가 되고, 마을 주민이 든든한 협력자, 후원자를 자임한다면 세대 간 소통 활성화는 물론 건입동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갈림길 선 차고지 증명제 시행착오 끝내야

전국 유일의 '차고지 증명제'가 개선될지, 계약으로 갈지 기로에 선다. 폐지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개선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가닥을 잡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6일 도청에서 개최한다. 최종 보고회 예정이다. 보고회 다음날 개선안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용역 안에 제주도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폐지 수준까지 갈 정도는 아

니라는 게 중론이다. 시책말로 개선될지, 계약으로 갈지 기로에 선다. 폐지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개선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가닥을 잡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취지는 차량 증가 역제로 도심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 달성이다. 그 목적은 온데간데없다.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위장 전출입 등 편법이 횡행했다.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했다. 다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49.9%)와 유지(50.1%) 입장이 팽팽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의미한 제주도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폐지 수준까지 갈 정도는 아

열린마당

표선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박한범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구급대원들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외 교통사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이 침착하게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송 중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측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기도 했다.

별써 4주가 흘러갔다. 이번 실습은 통해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업무를 이해하며, 전문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고, 확실한 꿈과 목표를 얻어가는 값진 시간이 됐다. 모든 것이 부족한 나였지만 그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신다는 표선 119센터 반장님들,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께 감사하다.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신속하고 침착한 상황을 대처하는 구급대원들을 보면서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나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119 구급대원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표선119센터에서 현장 실습 기회를 얻었다.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설렘과, 첫 소방실습이란 걱정을 안고 이번 소방 실습에 참여했다.

표선119센터로 이동하자마자 출동을 하게 됐다. 하복부 통증 환자였는데, 응급실 실습을 통해 늘 응급처치 후 이송된 환자를 보다가 실제 현장을 마주해 쓰러져있는 환자를 마주하니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환자를 대하며

뉴스-in

제주항공, 제주노선 등 감편 운항

“일정 변경 등 불편 최소화”

○...제주항공이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착륙 중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6일부터 동계스케줄 종료 시점인 3월 29일까지 항공기 운항량을 감축해 안정성과 정시성을 강화한다고 안내.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김포, 제주~부산, 제주~청주, 제주~무안 등 국내 노선 4개 노선 838편과 무안발 국제선 5개 노선 278편 등 1116편의 운항을 감편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비운항이 결정된 노선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 또는 환불 조치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비운항 노선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자동차세 징수율 역대 최고치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9억 5000만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78.9%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77.5%보다 높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로는 역대 최고치.

앞서 서귀포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율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12월 한 달간 자동차세 책입징수반을 편성·운영해 변호관 영치(예고) 활동에 나섰고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

서귀포시는 “징수율 증가는 서귀포시민의 성실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위기 처한 제주관광, 활력 대책 서둘러야

제주경제의 핵심 축인 관광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잇단 악재로 올해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내도 관광객은 내국인 1187만여 명, 외국인 190만여 명 등 총 137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1338만여 명에 비해 40만명(2.9%)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169.5%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율을 주도했다.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도 1268만여 명보다 6.4% 감소했다. 유치 목표(1300만명)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침체에 빠진 제주관광 활성화 위해 내국인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 무위로 끝났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해외 관광수요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내국인 유

치 확대는 한계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비계 삼겹살', '해수욕장 평상 갑질' 등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논란은 제주여행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급기야 제주여행을 가느니 차라리 해외 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는 조롱 섞인 여론까지 일었다.

문제는 올해 제주관광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데 있다. 탄핵정국과 항공기 참사, 고환율 등으로 여행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신규 예약도 줄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주관광엔 악재다. 제주만이 갖는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국은 여행 만족도 제고, 고비용·불친절 해소,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여산송공 태진(前 동수동 노인회장·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월 6일
아들 송시욱 며느리 강영이
정운 현아영
딸 송미경 사위 김학남
미화 고병택
이형영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1월 25일 주주총결의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5년 2월 7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6일
주식회사 케이앤씨 모터스
청산인 고도찬
제주시 동광로19길 55, 3층 301호(일도아동, 하나프라자)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3692-842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곡식품의학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영인 / 2009 백도라지 영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가족묘지 문중묘지 허가대행
별초대행 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배우자 박재천(서귀포시니어클럽 관장, 前 더사람 상임이사)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월 6일
배우자 강현수
딸 박하얀
사단법인 더사람 가족일동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내 가능합니다.”
◆자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